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

김홍진(한남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윤리적 개별성과 말 걸기의 좌절 |
| 2. 시선의 편향과 이중의 억압 | 5. 맺음말 |
| 3. 침묵의 강제와 말하기의 실패 | |

1. 머리말

손창섭은 1952년 『문예』지에 「공휴일」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그는 전후 한국사회의 삶과 현실을 독특한 스타일로 형상화한 문제적인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한국 전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하나이다. 전후사회의 현실과 인간상을 그린 작가는 많다. 하지만 손창섭 만큼 “극도의 혼란과 절망으로 점철된 '50년대의 특징”과 “훼손된 삶의 모습”, “그로 인한 절망과 방황”을 “명백하게 다른 작가는 혼치 않다.”¹⁾ 그는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 현

* 이 논문은 2013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기인, 『개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에의 집념』,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34면.

실의 병리적 증상과 부조리, 인간 상실과 소외, 도덕의 붕괴와 가치의 몰락, 질서의 파괴와 혼돈, 타락한 정신과 피폐한 삶의 절망적인 상태에 소설적 관심을 집중했다.

손창섭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신·육체적으로 병적이며 불구화된 비정상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 관계망이나 가치규범에서 절연된 채 음울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불구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유독 인간의 자기 모멸적 상황과 추악한 측면만을 부조하는 그의 소설은 “인간 전반에 대한 원한과 혐오의 카타르시스”²⁾라는 평가처럼 극단적이라 할 만큼 부정적 시각으로 당대 인물과 현실을 재현했다는 비판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극단적인 모멸과 회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강한 애착과 건강한 삶에 대한 염원이 숨겨져 있으며, 전망이 부재하는 전후의 피폐한 혼란상과 부조리한 현실의 냉소적 제시⁴⁾라는 해석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손창섭 소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고, 상당한 분량의 연구가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본고의 논제와 연관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여성인물에 주목한 사례⁵⁾이다. 이 연구들은 남성인물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인물을 통해 전후사회의 병폐와 그로 인한 허무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무엇보다 그동안 손창섭 소설의 남성인물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주변인물이기는 하지만 인물들의 관계성 속에서 여성인물은 작품의 의미 생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성인물을 초점으로 하는 이들 연구는 손창섭 소설의 의미를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는 남성인물을 중심에 두고 여성인물들을 전형성에 맞추어 그 유형을 구분하는 데 그치거나, 여성인물을 통해 남성인물의

2) 유종호, 「모멸과 연민」, 송하춘, 『손창섭론』, 새미, 2003, 22면.

3) 이동하, 「손창섭 소설의 세 단계」, 전광용 외, 『한국현대 소설사 연구』, 민음사, 1984.

4) 김병익, 「원형과 검증」, 『한국 현대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7.

5) 양현진, 「손창섭 소설의 환상적 타자성 연구」, 『현대소설연구』제33호, 현대소설학회, 2007. 3.; 송경빈, 「손창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8집(7권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3.

병리적 심리와 욕망을 해명하는 데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중적 권력관계 속에서 이중으로 배제되고 억압받는 손창섭 소설의 ‘하위주체(subaltern)⁶⁾’로서 여성인물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손창섭 소설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하위주체로서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기존의 남성 편향적 분석과 평가에서 벗어나 손창섭 소설의 위상과 가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창섭 소설은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없는 소외된 타자들의 우울하고 병적인 비극적 삶의 양상에 주목한다. 그러나 ‘타자들이 겪어야 하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 인간 파괴조차도 여성의 몫이라기보다는 남성의 몫⁷⁾’으로만 의미화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의 중심에서 배척되고 소외당하는 타자를 주목한 손창섭의 소설에서조차 여성인물은 타자화된 남성으로부터 다시 타자화되는 이중의 배제와 억압의 ‘여성 하위주체(gendered subalterns)⁸⁾’로 전략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편향된 시선에 의한 이중억압과 타락한 욕망의 표상 대상으로서 여성 하위주체의 재현 양상을 살핀다. 둘째, 침묵의 강제에 의한 묵살된 발화와 ‘말하기’의 좌절 양상과 의미를 분석한다. 셋째, 내밀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개별성’(ethical singularity)

6) ‘하위주체’는 사전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즉 하층민을 뜻한다. 이는 그림시의 『육중수고』에서 개진된 개념으로 계급, 카스트, 성, 인종, 언어, 문화와 관련된 종속성을 지시하며, 역사에 있어서 지배/피지배 관계의 중심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스피박은 그림시의 ‘하위’라는 개념을 ‘하위층 사람’으로 상정하고, 하위주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괄하면서 성적,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로 자본의 논리에 의해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규정한다(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117면). 즉 하위주체란 계급이나 젠더와 같은 여러 범주들과 요소들 사이에 작동하는 지배와 종속의 복잡하고 다중적인 권력관계를 지시하는 개념이다(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4, 169면).

7)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서해문집, 2004, 2면.

8) 스피박은 ‘젠더화된 서발턴’으로서 ‘여성하위주체’를 주목했다. 스피박은 사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지배적 담론체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이들을 ‘하위주체’라고 했다. 스피박은 하위주체는 “여성과 피식민지인 같은 ‘엄격한 계급분석’의 환원적 용어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적 정체성과 투쟁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용어로 보았다(스티븐 모튼, 이은경 옮김, 『스피박 넘기』, 앨피, 2005, 91면).

과 여성인물에 대한 남성인물의 ‘말 걸기’의 실패 과정을 살핀다. 스피박은 억압과 예측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여성 하위주체를 재현하거나 묘사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말을 걸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⁹⁾을 펼친다. 하지만 손창섭 소설에서 여성인물에게 말을 걸어주는 인물은 드물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의 소설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남성인물들이 시도하는 여성 하위주체를 향한 말 걸기와 내밀한 만남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근중심의 편향적 시선의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고 만다.

본고는 그 실패와 좌절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손창섭 소설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타자화된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을 조명한다. 그리하여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하위주체에 대한 인식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그 한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고는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개진하는 하위주체 개념을 전유하면서 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¹⁰⁾을 중심으로 여성 하위주체가 어떻게 재현되며,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거세당하고, 또 남성인물과의 소통이 어떻게 실패하고 타자화되는지 조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하위주체의 재현 표상과 의미를 조명하고, 그 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시선의 편향과 이중의 억압

손창섭의 소설은 등장인물을 통해 집요하게 인간의 어둡고 병적인 심리를 파헤친다. 전후의 현실은 참혹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비정상

9) 윤리적 개별성이란 여성 하위주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적 개별성이 밑바탕이 될 때 진정한 인간관계로써 내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종성의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살림, 2006, 60~65면)을 참조.

10) 손창섭의 소설은 대부분 1950년대 발표되었다. 그의 작품 경향은 1960년대 들어 주로 통속적인 흥미위주로 변한 까닭에 그의 문학사적 의미는 주로 1950년대 발표된 작품에 국한된다. 그간의 논의들도 이 시기의 작품들에 주목하여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본고도 이 시기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전쟁이 낳고 양육한 인물이기에 비정상적인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전후사회의 비극적이며 부조리한 상황의 상징적 표상이 불구화된 인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사회 공동체에서 배제된 ‘열외인간’에 다름 없다. 아감벤은 비록 인간으로 살아 있다고는 하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열외인간’을 ‘호모 사케르’¹¹⁾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손창섭 소설 속의 인물들은 전후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들은 비구성원, 즉 생물적 생존만이 허락된 ‘호모 사케르’로 존재한다.

손창섭의 소설에서 타자인 ‘호모 사케르’로서 여성인물들은 많은 작품에서 매춘부로 등장한다. 이들은 대개 중심으로부터 타자화된 남성인물들에 의해 다시 억압받는 타자로 간주되며,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미해결의 장』의 광순, 『유실몽』의 누이와 춘자, 『사연기』의 정숙, 『생활적』의 춘자, 『비오는 날』의 동옥 등은 모두 무능한 남성을 대신해 몸을 팔아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인물들에게 여성인물들의 매춘은 성적 충동에서 비롯한 부도덕한 행위로 이해된다. 그녀들은 일반적 가치규범과 도덕적 윤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여성’으로서 무기력한 남성을 더욱 불구화시키고 내면적 혼돈을 야기하는 타락의 주체이자 부조리한 사회악의 근원으로 제시된다.

누이에게 있어서는 남녀관계와 돈만이 인생의 전부였다. 누이의 화제는 언제나 그 두 가지 문제에서만 시작되었다.¹²⁾

『유실몽』에서 누이는 생래적으로 돈과 육체적 쾌락을 밝히는 타락한 인물로 제시된다. 서술자인 ‘나’의 시선에 의하면 누이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부라는 직업을 갖은 것으로 인식되고, 매부인 상근 역시 수시로 누이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일삼지만 ‘나’는 이에 무관심하다. 무능한 자신과 매부를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누이의 매춘은 ‘나’의 시각에 따

11) 이현우, 『로자와 함께 읽는 지젝』, 자음과모음, 2011, 147면. ; 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멀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33면.

12) 손창섭, 『유실몽』, 조현일 책임 편집, 『손창섭 단편선 비오는 날』, 문학과학지성사, 2005, 222면. 이후의 인용은 모두 이 단편선에서 가져온 것이며, 각주 없이 인용문 끝에 작품명과 면수만을 밝힌다.

르면 동물적인 성적 본능충족에 지나지 않는다. 누이의 매춘은 타고난 바람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누이의 매춘은 단지 타락한 성적 욕망의 본능적 충족일 따름이다. 그로 말미암아 누이는 사회 경제적 억압과 횡포, 남성들에 의한 성적 억압과 폭력이라는 이중적 식민 상태로 전락한다.

일반적으로 매춘 여성의 성 체험은 윤리나 쾌락으로서의 성의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감정과 분리된 노동이다.¹³⁾ 그런데 손창섭의 소설에서 매춘은 직업이나 노동으로서의 의미는 간과된 채 본능적 쾌락의 충족이나 윤리적 파탄으로 서술된다. “남녀관계와 돈만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매춘이 시작되었다는 시각은 남성인물만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각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특이한 점은 “손창섭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품에 강하게 참여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¹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성인물의 매춘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던 서술태도가 무너지고 만다. 매춘행위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은 여성인물이 지닌 동물적인 성적 욕구에서 비롯한 쾌락추구를 위한 자발적 행위임이 강조된다.

그날 밤 동주는 그냥 수컷이었을 뿐이었다. 그 뒤에도 춘자는 거의 밤마다 동주를 가만 두지 않았다. 타오르는 듯한 젊음을 감당하지 못해 야위어 가는 동주의 육체에 매달려 내내 양탈이었다. 그러한 춘자가 마침내 동주는 징그럽기까지 했던 것이다. (『생활적』, 91면.)

『생활적』의 동주는 일본인 중학 동창의 동생인 춘자에게 기생하는 현실 부적응자이다. 춘자는 여러 남자를 거친 몸으로 사생활이 문란한 여성이며, 거의 매일 밤 “동주의 육체에 매달려 내내 양탈”을 부리는 요부처럼 제시된다. 서술자에 따르면 그녀는 동주에게 “징그럽기까지” 하여 성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이렇게 손창섭 소설에서 서술자에 의해 초점화되는 여성인물들은 한결같이 과도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타락한 존재로 제시된다. 여성

13) 김중희·최혜실 편, 『문학으로 보는 성』, 김영사, 2001, 249~250면 참조.

14) 김진기, 『무의미의 미학』, 박이정, 1999, 147면.

하위주체들은 남성 편향적 시선에 의한 재현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미 건설된 기존의 맥락에 강제로 주입”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¹⁵⁾ 되는 인물이다. 즉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세계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¹⁶⁾으로부터 “분리되고, 정복되고, 포섭”¹⁷⁾된 채 이중의 노예적 주체로 세계 속에 기입된다.

물론 이러한 여성의 성적 타락은 전후사회의 혼탁한 현실과 부조리를 비판하기 위한 손창섭 소설 특유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인물들이 주로 남성인물의 내면적 혼돈의 중요한 요인으로 동원된다는 점은 다른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성 하위주체들은 타락한 욕망의 주체로서 병적 남성인물들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앞선 논의에서 처럼 과잉된 성적 욕망을 탐닉하거나, 혹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구원의 여인상으로서 신비적으로 이상화되거나, 혹은 물질적 욕망의 추구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는 위협한 여성으로서의 악마적 성격이 과도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미해결의 장』의 광순에 대한 남성인물들의 의식은 이중적이다. 그녀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몸을 팔아서 무능한 오빠의 가족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하지만 오빠인 문 선생은 동생의 처지를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오빠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광순은 그러나 서술자인 ‘나’의 눈에는 “티 없이 맑은 웃음이 잠시라도 사라질 줄 모르는”¹⁸⁾ 『미해결의 장』, 171면)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런 광순은 도무지 해결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인 ‘나’에게 구원의 여인상으로서 천사 같은 존재이다. ‘나’는 광순을 천사의 이미지로 성녀(聖女)화하여 신비적으로 이상화하고, 구원의 대상의 여긴다. 이 같은 재현 특성은 손창섭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치몽』의 을미는 소년들에게 ‘여신’과 같은 존재이고, 『육체추』의 마리아(신귀임 여사)는 원생들에게 ‘마음이 통하는’ ‘어머니, 애인, 누이, 아내’로서 주변 인물로부터 신성시된다. 『낙서죽』의 상희는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15) 앙리 르페브르, 김종민 옮김, 『모더니티입문』, 동문선, 1999, 182면.

16) 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역, 앞의 책, 33면.

17) A. 아이스테인슨, 임옥희 옮김, 『모더니즘 문학론』, 현대미학사, 1996, 248~249면 참조.

살아가는 남성인물 도현에게 신성하고 순결한 존재이며, 『잉여인간』의 흥인숙 역시 악녀인 봉우 처와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성녀로 신비화되어 있다. 이렇게 신비화된 여성인물들은 남성인물의 정신적 결함이나 불구적 소외 상태를 상상적으로 보완해준다. 이 여성인물들은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사실적 인물들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남성에게 의해 이상적으로 창조된 인물이다. 이들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결함을 지닌 남성인물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결핍을 보정한다,

손창섭 소설에서 남성인물의 “정신적 구원자로서 역할하는 신비화된 여성들은 남성들의 꿈과 이상, 공포를 발생시키는 상상의 장소”¹⁸⁾이다. 남성인물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여성인물에게 투사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에 의해서 타자의 입장에서 윤리적 사유와 대화를 펼칠 수 있는 이상화된 성녀의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매춘부나 악녀의 이미지와 대립적으로 겹쳐지면서 현실적 삶의 구체성이 왜곡되고 만다.

한 달이면 절반은 사업을 합네 혹은 친절에 가 있습네 하고 집을 비우기가 일쑤인 봉우 아내는 여러 가지 불미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 여자는 본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봉우와 결혼한 지 여덟 달 만에 낳은 첫 아이가 봉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둘째 아이 역시 누구의 찌지 알게 뉘냐고 봉우 자신 신용을 하려 들지 않았다.(『잉여인간』, 331면.)

『잉여인간』에서 봉우의 아내는 남성권력과 맺어야 할 이상적 관계를 벗어난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만기는 손창섭의 작품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남성인물이다. 이런 만기에 대한 봉우처의 성적 유혹은 매우 집요하고 강렬하다. 그녀는 품행이 문란한 여성으로서 부정적인 가치관을 지닌 전형적인 인물로 서술된다. 봉우 아내는 긍정적 남성인물 만기를 곤경에 빠뜨리는 아비한 악녀이다. 그녀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물질화된 욕망의 주체로서 순결성이나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악마적 여성의 표본으로 제시

18) 송경빈, 앞의 논문, 263면.

된다. 봉우의 아내는 작중의 홍인숙처럼 결합 투성이인 남성인물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월적 기표로서 “위대한 여신”¹⁹⁾의 이미지와 극단적으로 대척되는 지점에서 사악하고 위험한 여성인물의 전형으로서 제제벨(Jezebel)이나 후치(hoochei)²⁰⁾와 같은 인물로 제시된다.

이러한 특성은 『소년』에서 술집 작부로 일하며 자식 교육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남자 손님과 어울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문재야 창훈의 어머니나, 『신의 회작』에서 아들의 현재나 미래는 전혀 관심 없이 정부와 정사를 나누는 데에만 몰두하는 성격파탄자 S의 어머니가 지닌 성격으로 반복된다. 이들은 모두 매춘을 일삼고 배다른 자식을 낳은 무책임하며 불결하고 악마적인 여성의 표상이다. 물신화된 극단적 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그녀들은 남성인물의 타락과 기행, 병적 의식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다. 그 밖에도 『피해자』, 『층계의 위치』, 『사제한』 등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매춘이나 불륜을 일삼으면서 별다른 윤리적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패륜녀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성적 욕망과 물신 욕망에 빠진 여성은 남성인물에 의해 상상적으로 구성된 ‘모두를 키워주는 여신’²¹⁾으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같은 여성인물은 자신들의 도덕적 타락성 때문에 서너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동시에 몰욕에 몰두하는 타락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서술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물질적이며 왜곡된 성적 욕망에 집착하는 물신의 화신으로 제시함으로써 남성인물들의 무기력감이나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혐오감을 촉발하거나 증폭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삼는다. 그녀들은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됨으로써 이중억압의 하위주체로서 존재성이 규정되는 것이다.

19) 진 시노다 불린, 조주현·조명덕 역,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또 하나의 문화, 1992, 27~45면 참조.

20) 제제벨은 성경의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파탄시킨 여성이다. 서구 남성주의 문화에서 제제벨은 성적으로 난잡하고 문란하며,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통제하려는 사악한 여성을 가리킨다. 창녀나 매춘부를 뜻하는 후치는 제제벨의 현대판 이미지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적 이미지가 가시화되는 대표적 예이다(한우리, 『하위주체 여성의 몸』, 중앙대 석사논문, 2011, 32~33면 참조).

21)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한국여성학』제13권 1호, 한국여성학회, 1997, 20면.

그처럼 부부 생활을 싫어하면서 왜 세 번씩이나 결혼을 하였느냐고 따지듯 물어본 것이다. 순실(順實)의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다. 첫째는 과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고, 둘째는 용돈을 좀 맘놓고 풍청풍청 써보고 싶어서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난 병준(炳俊)은 공연히 제 쪽에서 낫을 붙혔다. 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커다란 과오같이만 해석되는 것이었다.(『피해자』, 143면.)

『피해자』의 ‘병준’은 여러모로 순실과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순실과 장인의 농간에 빠져 결혼하게 되지만, 결혼 후 남편으로서 병준의 인간적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힌 순실과 장인으로 인해 그는 노동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한다. 세번씩이나 결혼한 데다가 그녀에게 딸린 자식까지 부양하는데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는 아내의 뻔뻔함에 병준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말하자면 순실의 악마성이 병준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돈을 모으는 데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서 자신의 물질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고선생과 결혼하려는 『설중행』의 화장품 가게 여주인의 성격에서도 반복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육체를 매개로 남성인물로 대표되는 초점화자의 고통과 좌절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여성의 악마적 성격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세계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²²⁾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성인물들은 전후의 피폐한 현실 공간 속에서 가장 억압받는 주체이면서도 타락한 현실의 원인을 제공하고 표상하는 부정적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탐욕스럽고 게걸스러우며 낭비적인”²³⁾ 여성의 성적 욕망은 여성의 성을 예외적이며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남성의 규범적이며 이중적인 성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전통적인 성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편향된 시선은 이중으로 배제되고 억압받는 여성 하위주체를 타락한 현실의 표상으로 제시하게 한 것이다.

손창섭 소설에서 서술자에 의해 초점화되는 여성인물들은 한결같이 물신

22) 박혜경,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 『한국문학연구』 제1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7, 15면.

23) 제프리 워스,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5, 61면.

욕망에 사로잡힌 비도덕성과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여성 인물들은 육체적 쾌락과 물질 욕망에 의해 극도로 타락한 인물로 재현되며, 남성인물들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서술된다. 이를테면 현실의 물신화된 질서와 결합하고 있는 주체적 인물은 여성 하위주체들이며, 이들의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남성의 소외감과 무기력, 피해의식과 불구적 상태를 부추기고 심화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럼으로써 그녀들은 ‘위험한 여성’으로 표상된다. 그 결과 여성인물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동시에 억압받는 남성으로부터 다시 억압받는 이중억압의 존재로 전락한다. 이러한 이중억압에 의해 손상된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타자에 의해 재현됨으로써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성격이 부여된다.

3. 침묵의 강제와 ‘말하기’의 실패

손창섭 소설에서 여성 하위주체는 대체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발화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타자화되는 양상으로 재현된다. 인간은 말을 통해 자기와 동등하면서도 복수의 인간들 사이에서 행위의 주인이 되어 세계에 참여한다.²⁴⁾ 그러나 하위주체인 여성은 공적 언어의 장에서 말해지는 경험을 박탈당함으로써 침묵 속에 갇혀 있다. “언어가 주체를 구성한다는 전제는, 역으로 언어로 인해 주체로서의 경험을 박탈”²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창섭 소설의 여성 하위주체들의 경험은 결코 공적 영역에서 언어화되지 못하고 주로 타자화된 남성인물들의 시선에 의해 전유(專有)되고 대변된다. 그럼으로써 여성 하위주체의 발화의 권리는 박탈당하거나 묵살되기 일쑤이고 침묵이 강요된다.

특히 「사연기」의 정숙, 「비오는 날」의 동옥, 「광야」의 춘화, 「생활적」의 순이, 「혈서」의 창애와 같은 여성인물들은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그녀들을 초점화하고 있는 서술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녀들은 남성 서술자의 시각으로 재현되거나 묘사될 뿐, 스스로 말하는

24)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235~236면 참조.

25) 김애령, 「다른 목소리로 듣기」, 『한국여성철학』제17권, 한국여성철학회, 2012, 41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무능하거나, 하나의 스토리로 자기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또는 지배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발화의 공간을 박탈당할 때, 그 개인은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녀들은 “공적인 정치의 장에서 배제되어 자신을 주장할 수도, 의미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²⁶⁾할 수도 없는 철저히 배제된 채 제시된다. 정숙, 동옥, 춘화, 그리고 순이, 창애는 발화의 권리와 공간을 박탈당한 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남성으로부터 배제된 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억압의 타자로 존재한다.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 외에는 별로 말이 없는 정숙(貞淑)은 키가 작고 통통한 몸짓과 가무잡잡한 얼굴에, 또한 유달리 새까만 눈이 언제나 젖은 것처럼 서늘하게 맑고, 총기 있게 빛났었다. 입보다도 눈으로 더 많이 감정을 나타내는 여인이었다.(『사연기』, 29면)

말할 수 있는 자만이 유의미한 경험의 주인으로 세계 내에 자신을 현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연기』의 정숙은 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폐병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하는 남편 성규와 그의 친구이자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동식과 한 집에서 사는 그녀가 하는 말이라고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하고, 주체로서의 경험은 결코 말해지지 않아 정숙의 감정이나 성격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입보다는 ‘새까만 눈’으로만 자신을 표현할 뿐이다. 정숙은 남편의 억압과 첫사랑 동식의 연민과 동정에도 침묵으로 대응한다. 이 침묵은 자발적이기보다는 남성적 권위와 질서에 의해 강제되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병에 걸려 가족을 건사할 능력도 없는 가장인 성규와 가난한 교원인 동식은 사회의 주류에 편입할 수 없는 타자들이다. 그들은 정치·사회적 공동체 주변으로 밀려난 채 손창섭 작품 특유의 무기력함과 우울로 일관하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규는 매일같이 동식을 불러내 신세 한탄을 하고 노골적으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심한다.

26) 김예령, 위의 논문, 36면.

동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규와 정숙을 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 속 화자로서 줄곧 자신을 표현한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변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타자들이지만, 스스로의 욕망을 언어로 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독할 만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숙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정숙은 이중적 타자화의 대상으로 이야기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 사회로부터 또 남성으로부터 이중억압을 받고 있는 정숙의 욕망과 행위는 발화되지 못하고, 그저 동식의 입을 통해 번역되어 대변될 뿐이다. 이렇게 정숙이 어떤 상황에서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여성 하위주체의 삶이 이야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정숙의 목소리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여성 하위주체로 세계에 기입된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이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 이상의 존재론적 의미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말과 행위가 세계 안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전제라 할 때, 그녀의 “말과 행위가 없는 삶은, 문자 그대로 세계에 대해서 죽은 삶”²⁷⁾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남성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한 정숙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편지를 통해 말을 하려 시도한다. 정숙은 유서를 통해 아들 명호의 출생의 비밀과 그 동안 말하지 못한 자신의 진심을 밝힌다. 그동안 동식과 성규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욕망을 유서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숙의 말하기는 끝내 실패로 돌아간다. 진정한 여성 하위주체의 말하기는 독백이 아닌 화자와 청중 간의 교류를 통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숙의 시체와 유서를 보며 동식은 “줄기가 마르거나 열매가 물면 결국은 떨어지고야 말듯이, 정숙은 그렇게 죽을 수 있으리라”(『사연기』, 50면)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동식의 생각일 뿐이다. 유서를 통해 밝힌 정숙의 진심까지도 동식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동식의 의식에 의해 대변되고 전유됨으로써 정숙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춘화(春華)는 사건 발생 직후, 부친에게 끌려 일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그날

27) 사이먼 스위프트, 이부순 역, 『스토리텔링 한나 아렌트』, 엘피, 2011, 237면.

저녁 어슬막해서 되돌아왔던 것이다. 말을 못하는 춘화(春華)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승두(承斗)와 동오(東五)에게 매달려 슬개 울었을 뿐이었다. 헛간 같은 토막집에는 그 뒤에도 달포 이상이나 그들 네 사람이 모여 살았다. 날마다 어둠처럼 지루한 침묵이 방 안에 고여 있었다. 간혹 어린애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광야』, 33면.)

『광야』의 춘화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병어리이다. 춘화는 일제치하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떠난 타자들이 모여 사는 ‘장자위프’ 부락에서조차도 편입될 수 없는 존재이다. 당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남성들로부터 다시 억압받는 춘화의 병어리라는 불구적 양상은 결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설사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만 못한 여성 하위주체의 비극적인 삶을 표상한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자기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자기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주체만이 세계 내의 행위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다.²⁸⁾ 그러나 춘화는 선천적으로 말하기가 봉쇄된 인물로서 살아있음 이외의 어떤 실존적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춘화는 아무 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아버지 노왕의 살인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없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다. 춘화를 받아들이던 동오와 승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어떤 말도 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은 언어 안에서 태어난다. 언어를 통해 타인의 욕망이 조직되고, 또한 언어를 통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구성해낼 수 있다.²⁹⁾ 태생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춘화는 스스로의 욕망을 구성해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춘화는 자신의 욕망뿐만 아니라 승두와 동오의 욕망을 읽어낼 수도 없다. 그들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살인과 도주의 목격자였던 춘화의 눈물은 그녀가 승두와 동오에게 하고 싶은 말, 어찌면 이미 하고 있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춘화를 다시 “어둠처럼 지루한 침묵”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28) 폴 리콕트,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 『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4, 471면.

29)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5, 85~86면 참조.

춘화와 유사한 경우로 『생활적』의 순이와 『혈서』의 창에는 실어증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순이는 “마치 무덤 속에서 송장이 운다면 저려러니 싶은, 듣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암담한 소리”(『생활적』, 72면)의 신음만 내뱉을 뿐이다. 창에 역시 이와 비슷하게 “돌부처 이상으로 무표정한” “돌맹이처럼 늘 똑 같은 자세로 방 한구석에 버티고 앉아 있”(『혈서』, 115면)을 뿐 말이 없다. 실어증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이들의 말없음은 자발적이거나 의도적인 침묵처럼 보인다. 그러나 침묵을 고수하면서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자폐적인 증상은 이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거나, 말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외부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침묵은 실제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이를테면 이들 여성 하위주체는 “원래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는 말해도 들리지 않”고 “말해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³⁰⁾ 외부적 상황과 남성 중심적 시선의 편향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것은 “목살의 역사적 과정”³¹⁾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한 동옥(東旭)은 심지를 낮추어서 희미하게 켜놓은 불빛에도 화를 내어, 이년아 아주 꺼버리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동옥(東玉)은 손을 내밀어 심지를 조금 더 낮추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데려 오랬나 차라리 어머니하고 거기 있을 걸 괜히 왔지, 하고 종알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옥(東旭)은 벌떡 일어나며, 이년 다시 한 번 그 주둥일 놀려 빠라, 나두 너 같은 년 끌구 오구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하두 애원하시듯, 다 버리구 가더래두 하 조르기에 끌구 와 이 꼴이다, 하고 꼴을 내는 것이었다. 동옥(東玉)은 말없이 저편으로 돌아누웠다. (『비오는 날』, 63~64면.)

손창섭의 소설은 하위주체들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윤리적 통념으로 용납은커녕 납득조차 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자, 질병과 불구로 인해 죽음을 갈망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손창섭 소설이 주목하는 인물은 주로 남성에 국한되어 있고, 여성 하위주체 인물들의 목소리에는 좀처럼

30) 이진경,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휴머니스트, 2010, 75면.

31) 바트 무어-길버트,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244면.

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손창섭 소설 속에서 외면당하는 여성인물들은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타자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타자화된 남성들의 폭력과 무관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억압당하는 진정한 하위주체이다. 그러나 손창섭은 이중으로 억압받는 여성하위주체들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하다.

『비오는 날』의 동옥은 한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짧고 가는 신체적 불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대한 지나친 불신과 경계심을 지닌 인물이다. 동옥의 오빠 동옥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한때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술만 마시며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는 인물이다. 그런 동옥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이동생 동옥이다. 동옥은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번 돈으로 힘겹게 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동옥은 그런 동생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욕설만 퍼부어대며 구박으로 응대할 뿐이다. 동옥은 평소 오빠 동옥의 행패에도 말없이 눈을 흘기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결국 동옥은 동옥의 폭언을 이기지 못하고 말대꾸를 하고 만다.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동옥은 “이년 다시 한 번 그 주둥일 놀려봐라”라는 욕설로 목살해버린다. 이렇게 동옥의 목소리는 동옥에 의해서 언제나 철저히 차단된다. 동옥에게 동옥은 단지 돈을 벌어 오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옥은 동옥을 주체적인 존재나 혈육으로 맺어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가사나 노동력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동옥에게 학대받으며 동옥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버린 것이다.

동옥의 멸시와 폭력 속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던 동옥은 오빠 친구인 원구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평범한 소녀였던 동옥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오빠에게 버림받음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오빠로부터 받는 억압,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불구로 인해 또 다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하위주체로 전락해버렸고, 그런 그녀의 목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말하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침묵 속에서 살던 동옥은 원구의 친절과 호감에 조금씩 마음을 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뒷방에 사는 노파에게 돈을 떼이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간다. 자신의 목소리에 유일하게 귀를 기울여준 원구에게 동옥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기지만, 주인집 아이들이 찢어버려 결국

원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교류가 없는 독백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위주체의 말하 기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동옥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마지막 수단 인 편지마저도 찢겨지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버린다. 동 옥이 편지에 무슨 말을 썼는지, 원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아 무도 알 수 없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원구와 주인 사내를 통해 전유되어 대변될 뿐이다. 원구는 동옥이 “죽지나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죽든 ……”이라 생각하고, 주인집 사내는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러가지고 간 모양 이니 자살한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비오는 날』, 70면)하다고 말한다. 동옥 의 언어와 행위는 마지막까지 스스로 발화되지 못하고 남성들을 통해 대변되 는 것에 그친다.

손창섭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남성에 의해 대상화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 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타자화된 존재이다. 그녀들은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조차도 남성들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이중억압의 타자이다. 그녀들은 사회와 가정 으로부터 이중으로 식민화된 채 어떤 존재감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손창섭 소설의 여성 하위주체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환언하면 손창섭 소설의 여성 하위주체들에게는 ‘어떠한 언표 행위의 위치도 부여되지 않고 대변’³²⁾됨으로써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박탈당한 존재이다. 그녀들은 공적인 언어의 장에서 자신을 세계에 현상하지 못한다.

가장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말하지 않음’이나 ‘말할 수 없음’은 더할 수 없 는 생존의 지혜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치유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될 때 치유가 시작³³⁾되기 때문이다. 손창섭 소설 속 여성인물들 역시 고통을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 하지만,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녀들의 이야 기는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다. 말하지 못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능력

32) 로버트 J. C. 영, 김용규 역, 『백색 신화』, 경성대출판부, 2008, 402면.

33) 조은, 『침묵에게 말 걸기』, 김우창 편, 『평화를 위한 글쓰기』, 민음사, 2006, 440면.

과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그녀들은 이중억압의 하위주체로 구성되는 것이다. 복수의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은 말을 통해 행위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주체적 정체성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 말과 행위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양식”³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창섭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발화의 권리와 공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박탈당함으로써 이중억압과 배제의 하위주체로 남아 있게 된다.

4. 윤리적 개별성과 말 걸기의 좌절

제도적 장치를 넘어 책임과 의무에 바탕을 둔 ‘내밀한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개별성(ethical singular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윤리적 개별성이 관계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위주체에게 말을 걸 수 있고,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³⁵⁾ 손창섭 소설에서 여성 하위주체와 ‘윤리적 개별성’을 바탕으로 내밀한 만남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주로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초점화하는 인물들이다. 이를테면 「사연기」의 동식, 「비오는 날」의 원구, 「광야」의 동오와 승두가 바로 이런 인물에 속한다. 이들은 손창섭 소설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들로 호의적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남성인물에 비해 그래도 여성 하위주체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는 인물들이다.

「사연기」에서 정숙은 남편의 정신적·육체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입을 다물었다. 동식만이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친오빠 동욱으로 인해 침묵을 택한 「비오는 날」의 동욱도 원구의 관심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찾아간다. 양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광야」의 춘화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동오와 승두뿐이다. 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이중의 억압을 받는 여성 하위주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을 건다. 이런 그들의 말 걸기로 인해 억압 받으며 침묵을 강요당하는 여성인물들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

34) 사이먼 스위프트, 이부순 역, 앞의 책, 41면.

35) 조규형, 『탈식민 논의와 미학의 목소리』, 고려대출판부, 2007, 351면.

기 시작하지만, 그러한 말 걸기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러한 동옥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의 동옥은, 초초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찢찢맨다는 것이었다. 동옥은 그러한 동옥이가 측은해 못견디겠노라 했다.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랑 동옥이와 결혼할 테야, 암 하구말구, 하고 동옥은 고개를 주억거리는 것이었다. (『비오는 날』, 70면)

윤리적 개별성은 양쪽으로부터 반응이 있는 경우 가능해진다. 상대를 대변하거나, 또는 나와 유사한 관점에서 보고 비교하는 것은 윤리적 관계를 지워 버린다.³⁶⁾ 『비오는 날』에서 동옥은 원구와 자신의 동생 동옥의 결혼을 은연 중에 바란다. 동옥은 원구를 보고 처음으로 반짝이는 눈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녀가 원구에 대한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 동옥의 모든 심리 상태와 행위는 온전히 동옥의 입에 의해서만 묘사된다. 원구가 “자주 찾아와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거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찢찢맨다”는 동옥의 행위와 내면은 모두 동옥의 말을 통해 대변될 뿐이다. 동옥을 사랑한다는 원구의 말 걸기 또한 언제나 스스로와의 비교에서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밀한 만남은 좌절하고 만다.

동옥의 채근은 원구로 하여금 동옥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동옥을 향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호감으로까지 발전한다. 원구는 좁고 어두운 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옥에게 시달리는 동옥의 고통을 짐작하고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동옥과의 결혼을 생각한다. 그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동옥에게 연민을 느끼고 “알곳은 힘에 조종당 하듯” 그녀에게 이끌린다. 그 이끌림은 원구가 찾아가는 힘수에 따라 부드러워지는 동옥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침묵 속에서 살던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원구는, 그런 자신의 행위를 통해 변해가는 동옥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 동옥은 원구를 통해 삶의 희망과 웃음을 찾았고, 원구 역시 그런 그녀를 통해 알 수 없는 희열을 경험한다.

36) 조규형, 위의 책, 354면.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의 내밀한 만남은 원구에게 닥친 생활고로 인해 좋지 부를 찍는다. 지루한 장마 탓에 곰팡이가 낀 옷가지와 이부자리가 습기로 눅눅해진 방에서 지내야만 하는 원구에게 동옥은 무겁고 우울한 존재일 뿐이다.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고,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동옥을 외면한다. 이러한 원구의 외면 속에서 동옥은 편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춰버린다. 원구는 동옥과의 내밀한 만남을 시도하며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외면하는 방관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늘쯤은 성규가 죽어있었으면 하는 기대(?)조차 품어보는 동식이었다. 그러한 그가 아랫방에서 부를 적마다 필경 내려가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못해서였고, 그와 같은 감정을 구태여 합리화 시킨다면 차라리 정숙을 위해서였다고나 할까? 주야로 환자의 터무니없는 꾸밈을 혼자 꼬박 견어내야 하는 정숙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이기는 했다. (『사연기』, 29면.)

『사연기』에서 폐병에 걸린 성규는 윗방에 사는 동식을 수시로 불러내 폐약을 떨어댄다. 정숙과 결혼하라고 부추기는가 하면, 정숙과 동식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터무니없는 꼬투리를 잡아대기도 한다. 성규의 부름에 마지못해 아랫방으로 내려가는 동식은 자신의 행동은 정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동식의 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그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을 걸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정숙은 동식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이자 보살피줘야만 하는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게다가 동식은 막상 성규가 죽자 정숙과 그녀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동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정숙을 부부로 볼까 겁을 낸다. 또한 동식은 설마 죽기 전에 성규가 하던 말처럼 “나와 부부가 될 생각은 아니겠지”라는 두려움에 정숙을 피하려 한다. 이러한 동식의 행동은 성규가 죽고 난 후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정숙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결국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자살을 통해 정숙이 침묵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성규의 폭력과 사회적인 병폐에 있다. 하지만 동식의 잘

못된 말 걸기 역시 정숙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정숙은 유서를 통해 살아있는 동안 동식에게는 건넬 수 없었던 말을 동식에게 건넨다. 그러나 유서를 읽고 난 후에도 동식은 그녀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녀의 아들 명호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저주스러워 할 뿐이다.

정숙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숙이 죽고 난 후에는 그녀의 아이들을 보살피야한다고 생각하는 동식의 태도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우월성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타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동식의 태도는 성규 만큼이나 권위적이다. 그런 권위적인 동식의 태도에서 시작된 말 걸기는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내밀한 만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여성 하위주체가 끝내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를테면 고통스런 삶의 경험은 말하기를 통해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 고통은 재구성되고 의미화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야기는 일련의 건지기 힘든 어려운 사건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³⁷⁾는 것이다. 그러나 원구와 정숙의 만남은 윤리적 개별성의 내밀한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정숙의 삶은 의미화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에 이르고 만 것이다.

춘화는 뒤보러 혼자 나가기를 겁냈다. 대게 승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승두는 즐겨서 그 소임을 맡아주었다. 춘화가 안심하고 바지 괴춤을 풀어헤칠 때는 승두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다. 춘화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승두는 생각했다. 제일 가깝고 다정한 사이라는 자신이 썼다. 자기가 좀 더 커서, 춘화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면, 두말없이 응해주리라는 생각이 승두를 흥분시켜주는 것이다. 거짓말처럼 흰 춘화의 엉덩짝을 결눈으로 훑쳐보며, “병어리만 아니라면……”하고, 승두는 가슴이 아파지곤 하는 것이었다. (『광야』, 289면)

『광야』에서 말 못하는 춘화의 곁에는 승두와 동오가 있다. 춘화는 자신의 옆에 있어주는 두 남자의 존재에 기쁨과 고마움을 느낀다. 춘화는 병어리인

37)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인간사랑, 2010, 160면.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하지만 조금의 경멸감도 없는 태도로 자신을 대해주는 승두와 동오와 함께 하는 순간만은 좋아한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두 남자가 자신만은 매일 찾아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춘화는 두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믿고 있다. 하지만 승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춘화의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승두는 춘화가 화장실에 갈 때 꼭 자신과 함께 하고, 그 앞에서 바지 괴춤을 풀어헤치는 것을 보며 그녀가 분명히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승두는 춘화가 자신과의 결혼을 원한다고 생각하며 혼자 흥분한다. 하지만 정작 춘화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춘화의 모든 행동은 승두의 눈을 통해 묘사된 것이고, 춘화의 심리 상태 역시 승두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를테면 병어리 소녀 춘화는 승두의 목소리를 통해 대변될 뿐, 정확한 그녀의 목소리와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춘화의 생각과 모든 행위는 권위적 남성 주체인 승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만 드러날 뿐이다. 춘화의 행위는 두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해석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권위적인 두 남성 주체는 춘화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유한다. 이런 춘화와 승두의 관계는 남성의 시각에 침윤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하위주체가 무슨 경험을 하건 그것은 담론의 장에 잘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의 말로 표현할 기회조차 부족하며, 표현한들 제대로 이해받기 어려운 현실”³⁸⁾의 또 다른 정황을 환기한다.

『사연기』의 정숙, 『비오는 날』의 동옥처럼 『광야』의 춘자 역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 이야기가 오간다. 결국 노왕은 “곧 춘화가 열 일곱이 되니 소문만 퍼뜨리지 말고 그녀를 소실로 맞아달라”고 동오에게 청한다. 그러나 동오는 그런 노왕의 요청을 바로 거절한다. 동오가 말하는 춘화에 대한 사랑은 “이성애가 아니라, 다만 가련한 한 생명에 대한 인간애”(『광야』, 295면)였다. 가련한 춘화를 구원해주기 위해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후에 보이는 동오의 부드러운 미소는 스스로 춘화의 구원자가 됐다는

38) 태혜숙, 앞의 논문, 11면.

자부심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춘화의 존재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본인의 행위가 여성 하위주체를 구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오의 자가당착은 춘화와의 내밀한 만남을 불가능하게 한다.

손창섭 소설에서 여성 하위주체를 향한 남성인물들의 말 걸기는 내밀한 만남이 바탕이 된 ‘윤리적 개별성’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윤리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맺음이며 온갖 차이들과 거리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행위”³⁹⁾라 했을 때, 진정한 말 걸기의 전략은 여성 하위주체로 하여금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과 연민에서 비롯한 남성인물의 말 걸기는 하위계층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만다. 손창섭의 소설에서 여성 하위주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도하는 남성인물 역시 가부장적 남성주의 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의 동정과 연민 섞인 시선은 여성 하위주체가 입을 뿔 수 있도록 하지만, 그녀들이 본격적으로 침묵을 깨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그녀들의 말과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 다시 침묵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임의대로 해석해 대변하고 전유한다. 또한 그녀들을 침묵하게 만든 존재들로부터 구원해야 할 존재나 자신의 소유물인양 여기며 스스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런 그들을 통해 손창섭 소설 속 여성 하위주체들은 전유되고 대변될 뿐, 그 속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의식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말 걸기의 실패는 다시 그녀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존재론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5. 맺음말

손창섭의 소설은 소외받은 타자들을 등장시켜 불안하고 우울한 전후의 현실을 그린다. 그러나 이중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 하위주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손창섭 소설 속 여성 하위주체들은 대체

39) 태혜숙, 위의 논문, 8면.

로 남성인물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또한 말과 행위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하위주체들은 자신의 욕망을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며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배경으로 전락하고 있다. 말과 행위가 없는 삶은 문자 그대로 세계에 대해서 죽은 삶이다. 더 이상 인간 사이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말과 행위를 통하여 단순히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를테면 “말과 행위는 인간이 물리적 대상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양상이다.”⁴⁰⁾ 세계 속에서 행위 주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창섭의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남성인물과 지배 이데올로기, 사회적 통념과 억압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발화의 공간을 빼앗기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포기하거나 실패한다. 발화의 권리와 공간을 박탈당한 손창섭 소설 속의 여성 하위주체들은 공적인 장에 편입할 수 없어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소외되고 배제된 타자로서의 이중억압적 성격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다.

말과 행위로서 인간은 세계에 참여한다. 발화와 행위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죽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성 하위주체에게 작가와 다른 작중인물은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물론 서술자가 초점화하고 있는 긍정적 인물들이 작품 속 여성 하위주체에게 말을 걸면서 내밀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들은 침묵하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녀들의 말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그녀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창섭 소설 속 여성 하위주체의 삶은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그녀들을 억압하는 존재로부터 구원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며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여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윤리적 개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그들의 실패한 내밀한 만남은 여성 하위주체들을 또 다시 침묵하고 만드는데 이르게 한다. 손창섭의 소설 속 여성 하위주체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침묵을 강요하는 전후사

40)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앞의 책, 236면.

회의 인습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말을 걸어주지만 결국은 그녀를 외면하고 마는 이들로 인해 다시 무력하기만 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스피박은 여성 하위주체에게 진정성 있게 말을 걸 수 있는 인물로 ‘여성 지식인’을 지목했다. 남성들이 아무리 여성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도, 그 사이에는 어쩔 수없이 제국주의 담론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고한 그 벽은 여성 하위주체의 말을 때론 왜곡시키고 때로는 가로막아 온전히 들을 수 없게 만든다. 손창섭 소설의 여성 하위주체에게 말을 거는 인물들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억압당하는 이중적인 타자의 위치에 서 있는 여성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남성의 시각을 통해 재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는 손창섭이 남성 작가이고, 전후사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한계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 손창섭, 조현일 편, 『비오는 날』, 문학과지성사, 2005.
- 김병익, 『월형과 검증』, 『한국 현대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7.
-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한국여성철학』제17권, 한국여성철학회, 2012.
- 김진기, 『손창섭 무의미 미학』, 박이정, 1999.
-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4.
- 김중희·최혜실 편, 『문학으로 보는 성』, 김영사, 2001.
-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06.
- 박혜경,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 『한국문학연구』제19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97.
- 송경빈, 『손창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3.
- 양현진, 『손창섭 소설의 환상적 타자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현대소설학회, 2007.
- 유종호, 『모멸과 연민』, 송하춘, 『손창섭론』, 새미, 2003.
- 이기인, 『개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에의 집념』,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 이동하, 『손창섭 소설의 세 단계』, 전광용 외, 『한국현대 소설사 연구』, 민음사, 1984.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서해문집, 2004.
- 이진경,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휴머니스트, 2010.
- 이현우, 『로자와 함께 읽는 지책』, 자음과 모음, 2011.
- 조규형, 『탈식민 논의와 미학의 목소리』, 고려대출판부, 2007.
- 조 은, 『침묵에게 말 걸기』, 김우창 편, 『평화를 위한 글쓰기』, 민음사, 2006.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한국여성학』제13권 1호, 한국여성학회, 1997.

- _____,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 한우리, 『하위주체 여성의 몸』, 중앙대 석사논문, 2011.
- A. 아이스테인슨, 임옥희 옮김, 『모더니즘 문학론』, 현대미학사, 1996.
- 바트 무어-길버트,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인간사랑, 2010.
- 앙리 르페브르, 김종민 옮김, 『모더니티 입문』, 동문선, 1999.
- 진 시노다 불린, 조주현·조명덕 역,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또 하나의 문화, 1992.
- 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제프리 워스,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5.
- 로버트 J. C. 영, 김용규 역, 『백색 신화』, 경성대출판부, 2008.
- 폴 리콰르,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3: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4.
- 사이먼 스위프트, 이부순 역, 『스토리텔링 한나 아렌트』, 엘피, 2011.
-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5.
- 스티븐 모튼, 이운경 역, 『스피박 넘기』, 엘피, 2005.

【국문초록】

손창섭 소설은 소외된 타자들의 우울하고 병적인 삶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서 타자들이 겪어야 하는 전쟁의 상처는 남성의 몫으로 의미화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을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첫째, 이중억압과 타락한 욕망의 표상 대상으로서 여성 하위주체의 재현 양상을 살폈다. 둘째, 침묵의 강제와 ‘말하기’의 좌절 양상을 분석했다. 셋째, 여성 하위주체들에 대한 남성인물의 ‘말 걸기’의 실패 과정을 살폈다.

손창섭의 소설 속 여성들은 남성인물과 지배 이데올로기, 사회적 통념과 억압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발화의 공간을 빼앗긴 하위주체로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스스로 말하기를 포기하고 침묵한다. 발화의 권리와 공간을 박탈당한 여성 하위주체들은 공적인 장에 배제된 채 소외된 타자로서의 이중억압적 성격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서술자와 작중인물들은 여성 하위주체의 말하기를 박탈당해 침묵할 뿐이다. 또한 긍정적인 남성인물들의 여성 하위주체에 대한 말 걸기도 실패로 끝나고 만다. 남성인물들은 여성 하위주체를 전유하고 또 대변한다. 여성 하위주체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림으로써 말하기와 말걸기는 실패로 끝난다.

남성인물들은 여성 하위주체를 구원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또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여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윤리적 개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그들의 실패한 내밀한 만남은 여성 하위주체들을 또 다시 침묵하고 만든다. 손창섭의 소설 속 여성 하위주체는 침묵을 강요하는 전후사회의 인습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말을 걸어주지만 결국은 외면하고 마는 이들로 인해 다시 무력하기만 한 말할 수 없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손창섭, 하위주체, 여성 하위주체, 이중억압, 말하기, 윤리적 개별성, 말 걸기

【Abstracts】

Gender Subalterns Phase in the Son Chang-seop's Novels

Kim, hongjin

Son Chang-seop's novel pathological marginalized lives hitters eyes. However, the wounds of war in his novel is the role of the male. This paper is based on awareness of is sues such as the phase of the female Gender Subaltern subject. To this end, this paper is the first dual repression as an object of desire, repression and the fallen woman looked aspects of the reproduction of the subject child. Second, the forced silence and 'speaking' frustrating aspects of the analysis. Third, women of child actors for the male characters 'words hang' looked the failure of the process.

Son Chang-seop male figures in the novel and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women are forced to by the silence. In addition, the repressive myths of space taken away by the fire of sub-subjects. That's why you gave up speaking silent. Deprived of the right to fire women as sub ordinate actors marginalized batter has a dual nature of oppression. They can not tell people. In addition, the principal male figuresforthefemalechildisfailingand ends with the end of dialing. Male figures are subject to the appropriation of women and also represent the child.

Male characters are present in women should be sub ordinate to the principal aware of salvation. Also pray thatifthissalvage their belongings. They did not deviate from the patriarchal ideology. For this reason, the principal female sub breaks down into silence again. Son Chan-gseop subject of fictional female sub forced to silence after the conventions of society and the patriarchal ideology, and eventually talk to the outside, but again due to force one million of the speak able existential meaning.

Key words : Son Changseop, Subaltem, Gender Subaltem, Dual Repression, Speaking, Ethical Singularity, Making words.

이 논문은 2014년 1월 1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